

肺臟生理의 運氣的 인식과 그 生理系統의 임상적 의의에 관한 研究

신 흥 목 · 김 길 현*

ABSTRACT

A study on the Physiology of the Lung by 'Un Qi' and the clinical meaning of its Phyological Systems

Shin Heung-Mook, Kim Gil-Whon*

*Dep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This paper documents a study of the physiology of the lung. The aim of this paper is to better comprehend the physiological function of lung.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ological function of the lu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eum Un Qi Hua'(金運氣化), and the functional changes of the lung and its surrounding physiological systems have been studied in their relationship to the concept of the organism as a who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function of the lung is comprehended as corresponding to the 'Keum Un Qi Hua'.

In visceral phenomenon, the lung has specific relations with the large intestine(大腸), nase(鼻), skin and hair(皮毛), sweat gland(汗孔), nasal mucus(涕), spirit(氣魄), grief and melancholy(憂·悲), the lung channel of hand-taiyin(手太陰肺經), the large intestine channel of hand-yangming(手陽明大腸經).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 본 논문은 1996년도 동국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됨

This is called "the physiological systems of the lung", and because these mutual relations reflect the functional changes of the lung, it is applied as the elementary knowledge to diagnose and treat the lung. For instance, a deficiency of the 'Qi' of the lung brings on an unconsolidated defending energy whose manifestations are sweating spontaneously as well as being susceptible to the common cold due to a disability in fighting against external pathogenic factors. Invasion of the lung by external pathogenic factors blocks the movement of the 'Qi' of the lung, which results in nasal obstruction, watery nasal discharge and a hyposmia.

So the physiological functions and pathological changes of the lung can be determined by observing "the physiological systems of the lung" based on the precepts of oriental medicine.

As a result, the function of the lung is to be understoo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eum Un Qi Hua'. Furthermore we can know that the physiological systems of the lung mirrors the functional changes of the lung.

Key Words : 金運氣化, 德化政令, 生理系統, 肺臟氣化

I. 서론

『內經』에서는 “天地之大紀 人神之通應也”¹⁾라 하여 자연계 운동변화에 대한 인체 생명활동의 相參, 相應관계에 대하여 계통적인 논술을 진행하므로써 ‘天人相應’의 학술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생명활동의 기본규율을 “春夏養陽 秋冬養陰”²⁾이라하여 계절의 陰陽氣化에 따른 조화를 중시하고, 五臟과 계절의 相通을 설명하므로써³⁾ 동의학에서 계절은 五臟의 생리·병리를 연구하는 사유의 기본틀로서 運氣學說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계절의 氣化를 총괄하는 運氣와 臟氣의 상통에 근거한 五臟의 발현생리와 運氣氣化의 상응하는 규율성의 검토는 五臟生理의 형성배경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五臟의 생리나 병리를 인식함에 있어서 『素問·五臟生成篇』에 “五臟之象 可以類推”⁴⁾라 하고, 『靈樞·本臟篇』에서 “視其外應 以知其內臟

則知所病矣”⁵⁾라 한바, 臟腑활동의 외재적 표현은 五臟의 변화를 추론하는 근거가 됨을 제시하였다. 곧 五臟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조직·기관 등 일련의 系統을 통하여 생리나 병리상태를 반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은 運氣-五臟-生理系統을 축으로 하는 생리체계를 형성하므로써 동의학은 서양의학의 방법론과는 다른 자연과의 밀접한 상호관계와 臟象을 중시하는 이론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상에서 天人相應의 학술관점에 근거하여 臟腑生理의 형성배경을 이해하고 臟象論을 근거로 五臟과 그 生理系統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는 생리학 이론체계의 구축과 임상활용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思料된다.

이에 저자는 이미 발표한 바 있는 “五運氣化를 중심으로 살펴본 臟象의 生理發顯과 系統에 관한 研究”⁶⁾에 기초하여 肺臟 生理發顯의 본질을 파악하고, ‘臟象’의 관점에서 그 生理系統의 임상적 의의를 검토하여 지견을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天氣와 臟氣가 상통한다는 '天人相應'의 학술관점에 기초하여 肺臟生理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生理系統의 임상적 의의를 연구하고자 다음의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1. 肺臟의 生理發顯과 金運氣化의 常規인 德·化·政·令⁷⁾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2. 臟象의 관점에서 肺臟과 그 生理系統의 상관성을 임상적 의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본 론

1. 肺臟의 氣化

동의학의 人과 自然의 對象觀은 자연과 인간이 근원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자연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나눌 수 없는 相參·相應관계를 중시하여 「至眞要大論」에 “天地之大紀 人神之通應也”⁸⁾라 하였다.

이러한 天人相應의 관점은 계절의 변화를 개괄하는 運氣論에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氣交變大論」에 “五氣之變 四時之應……有德有化 有政有令 有變有災 而物由之 而人應之也”⁹⁾라 하여 기후변화의 정상(德化政令)과 이상(災變)에 대한 만물과 인간의 상응을 제시하였다. 또 「金匱眞言論」에서는 “五臟應四時 各有收受呼”¹⁰⁾라 하여 계절과 五臟활동의 상관성을 개괄하였다.

五臟과 계절의 관계에서 肺臟은 秋氣와 상통하고 가을(秋)은 金氣가 다스린다¹¹⁾. 실제로 『素問』의 「陰陽應象大論」과 「五運行大論」에서는 運氣의 燥金과 肺臟의 관련성을 논하였고¹²⁾, 朱登¹³⁾은 金의 屬性으로 肺臟의 氣化를 설명하였으며 郭登¹⁴⁾은 肺氣의 收斂을 秋氣에 상응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肺의 氣象은 오행의 金으로 대표되는

秋燥의 性用을 바탕으로 하므로 肺를 “燥金之臟”이라 하고 또 “秋氣에 통한다”고 한다. 따라서 肺臟의 생리발현은 金運의 氣化에 상응하는 작용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사상은 서양의학적 지식으로 동양의학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이며, 서양의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학체계를 형성하여 온 배경이다.

2. 金運氣化의 德·化·政·令

五運四時의 氣는 特性, 生化, 職權, 表現, 變動, 災害가 있어 만물은 이와 相隨하고 사람 역시 이와 더불어 相應하는데¹⁵⁾, 「氣交變大論」에서는 德化政令과 災變으로 運氣氣化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였다. 또 “德化者氣之祥 政令者氣之章”이라 하여 運氣氣化의 정상을 德化政令으로 표현하였다.

金運의 德은 清潔, 化는 緊斂, 政은 勁切, 令은 燥¹⁶⁾로 金運氣化의 氣象*을 표현하였다. 각각의 의미와 작용은 다음과 같다.

德은 각 계절 및 그에 相應하는 기후가 物化나 인체의 생명현상에 대하여 이로운 점을 말한다. 金運의 德은 ‘清潔’로 淸은 淸涼, 淸冷을 가리키며, 潔은 乾淨明亮으로 가을에 기후가 서늘하고 맑은 현상을 말한다¹⁷⁾.

化는 物化과정이나 인체의 생리활동에 미치는 作用을 말한다. 金運의 化는 ‘緊斂’ 즉 緊縮, 收斂 및 成熟의 뜻으로 가을에 金運의 生化作用에 의하여 식물의 생장이 성숙하고 견실함을 이룬다¹⁸⁾.

政은 物化나 인체에 미치는 職能을 의미한다. 金運의 政은 ‘勁切’로 金의 직능이 剛勁하여 식물이 凋落하고 生長이 停止하는 등 肅殺의 현상이 나타남을 말한다.

令은 각 계절의 기후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金運의 令은 ‘燥’로 기후가 청량하고 건조하여 雨水가 적게된다¹⁹⁾.

이상에서 金運氣化의 특성은 淸涼하고, 그 生

化는 堅實·收斂하며 그 職權은 凋落·肅殺·停止하고 기후의 표현은 건조하여 雨水가 적게 된다.

표1. 金運氣化의 特性과 現象發顯

金運氣化	특성	현상	비고
德	清潔	清淨, 清涼, 清冷	秋季 審平之 氣 容平
化	緊斂(堅斂)	堅實, 收斂, 緊縮	
政	勁切	凋落, 肅殺, 生長停止	
令	燥	清涼而乾燥	

3. 肺臟의 生理와 金運氣化

天人相應의 학술관점에서, 五行의 金은 肺를 상징하고, 肺의 생리는 金運氣化가 인식의 기준이 된다.

1) 肺氣의 특성

(1) 宣發肅降

宣發肅降은 肺氣의 작용경향이다. 宣發은 肺氣의 向上升達과 向外發散을 말하고, 肅降은 肺氣의 清淨(清肅)하고 下降하려는 생리적 특성을 말한다.

肺를 상징하는 金性は 가을에 왕성하고 가을의 緊斂(乾燥收斂)하고 燥(發散乾燥)하는 金運氣化의 작용이 인체에서는 肺氣의 '宣發'로 표현되고, 또 가을에 陰氣가 始生하여 清潔(清淨清涼)하고 陽氣가 下降하는 陽中之陰(秋氣)의 氣象에 상응하여 肺氣는 '肅降'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2) 嬌臟

肺臟은 호흡을 통하여 清氣(O₂)를 섭취하고 濁氣(CO₂)를 배출하는 청정한 곳으로 '清虛之臟'이라 한다. 또 肺는 직접 외계와 접촉하는 臟器로서 그 質이 嬌嫩하여 寒熱의 邪氣와 외부로부터의 병원 미생물이나 대기오염물질에 쉽게 손상을 받는다. 이러한 肺臟의 특성을 嬌臟이라 한

다. 이는 金運氣化의 清潔(清涼)에 상응하는 肺氣의 속성이다.

병태생리적으로 "形體를 차게하거나 차가운 것을 마시면 肺를 損傷"²⁰⁾하므로 肺에 병이 있으며 "寒飲食寒衣를 금하고"²¹⁾ 肺가 寒, 熱, 燥, 濕의 邪氣를 싫어하는 것은 모두 嬌臟의 특성을 반영하는 병태생리이다.

2) 肺臟의 기능

(1) 肺主氣

"肺主氣"는 呼吸과 전신의 氣에 대한 肺의 조절작용을 말한다.

肺氣의 宣發肅降작용은 呼吸에 있어서 清氣(산소)를 받아들이고 체내의 濁氣(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체교환을 가능케 하며, 肺에서 清氣와 水穀精微가 결합하여 형성된 宗氣를 통하여 營·衛氣의 운행을 추동한다.

肺主氣의 병태생리는 肺氣의 宣發肅降의 실조로 인한 호흡의 急迫, 胸悶, 咳嗽, 氣上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諸氣膜鬱皆屬於肺"²²⁾라 한다.

(2) 通調水道

肺氣의 肅降作用은 水液대사의 과정에 있어서 水道를 疏通하고 조절하여 대사후의 수분을 방광으로 보내는 작용이 있다. 이를 "通調水道 下輸膀胱"이라 한다. 또 수액대사에 관여하는 肺가 上焦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肺를 "水之上源"이라 한다.

만약 肺氣의 肅降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水之上源으로서 肺는 上焦에서 비정상적인 체액의 형성에 관여하여 痰飲을 형성하므로 '肺를 貯痰之器'라 하고, 또 鼻竅를 熏蒸하여 涕가 되므로 "涕者 肺氣之熏蒸也"라 한다.²³⁾

이상 金運氣化의 清潔(清涼·清肅)과 緊斂에 상응하는 肺氣의 宣發肅降에 의하여 營·衛氣를 추동을 하고, 신진대사로 형성된 노폐물과 濁氣의 배설을 원활하게 하므로 肺는 인체에 대하여 自淨作用이 있다.

(3) 肺의 抑制機能

생명현상의 五種機能 관찰면에서 肺臟은 抑制機能²⁴⁾을 대표하는 臟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肺氣는 金運의 緊斂, 勁切(淸肅·收斂·生長停止)의 작용으로 만물의 생장이 정지하고 나무가 시들고 잎사귀가 떨어지는 현상에 상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肺를 생명활동에 있어서 抑制機能을 대표하는 臟으로 인식한다.

이상으로부터 肺臟의 생리에 대한 본질적 인식은 金運氣化의 德·化·政·수에 법칙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金運氣화와 肺臟生理의 相關性

肺臟生理 金運氣化	特性	機能	備考
淸潔, 緊斂, 乾燥	宣發肅降	肺主氣, 通調水道 下輸膀胱	治節出焉 水之上源
勁切, 緊斂 (肅殺, 凋落, 收斂)			抑制機能
淸潔(淸虛)	嬌臟		不耐寒熱

4. 肺臟 生理系統의 임상적 의의

1) 肺臟의 生理系統

臟象學에서 생명현상의 연구는 인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과 五臟의 유기적인 상관성을 전제로 하며, 五臟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일련의 형체 조직을 五臟의 生理系統이라 하며 이는 오장의 기능변화를 반영하므로 機能發顯系라고도 한다.

肺臟의 生理系統은 六腑의 大腸, 五官의 鼻, 五體의 皮, 五華의 毛, 涕液, 精神·情志활동의 魄과 悲·憂 및 經絡의 手太陰·陽明經으로 체계화 된다.

2) 肺臟 生理系統의 임상적 의의

五臟은 開竅, 其充, 其華 등의 관계로 五官(耳目口鼻舌), 五體(皮, 肉, 筋, 骨, 脈), 五華(面, 毛, 髮, 爪, 唇)로 그 변화를 반영한다^{25,26)}. 이에 『素問·五臟生成』에 “五臟之象 可以類推”라 하고, 『靈樞·本臟』에서는 “밖으로 應함을 보아서 그 內臟을 알면 그 병든 곳을 알 수 있다”²⁸⁾고 한다. 곧 五臟은 外顯하는 상태를 관찰하여 그 변화를 임상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大腸

肺臟은 上部에 大腸腑는 下部에 위치하고 있으나 手太陰肺經은 肺臟에 歸屬되고 大腸腑를 聯絡하며 手陽明大腸經은 大腸腑에 歸屬되고 肺臟을 聯絡²⁹⁾하는 등 經絡의 연계를 통하여 그 氣가 相通하고 臟腑의 表裏相合관계를 형성한다.

氣의 상통을 통한 大腸과 肺의 상호 영향은 대변과 호흡방면으로 관찰된다. 肺氣의 肅降作用은 大腸의 傳道작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唐容川은 “大腸이 傳道를 할 수 있는 것은 肺氣가 下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大便을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肺氣를 조절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대로 大腸의 傳道기능은 肺氣의 肅降을 도와 정상적인 呼吸의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肺의 通調水道는 大腸內 水濕의 停留와 津液의 枯渴을 조절하여 대변의 원활한 배설을 돕는다.

臨床에서 肺臟 수액대사 기능의 부조화가 大腸에 영향을 미쳐 설사나 변비를 초래하고³⁰⁾, 大腸氣의 阻滯로 氣急, 喘促하거나 大腸氣의 滑脫로 氣息이 微微하고 少氣懶言하는 등증은 肺와 大腸의 相合관계에 의한 병태다³¹⁾.

이처럼 肺와 大腸은 經氣의 交通을 통하여 생리·병리적으로 상호 영향한다.

(2) 鼻·涕

鼻(코)는 공기가 출입하는 통로로 인후와 기관을 거쳐 肺臟과 통한다.

『內徑』에 의하면 “鼻는 肺의 官”³²⁾으로 肺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³³⁾. 『靈樞·脈度』에서는 “肺氣通于鼻 肺和則鼻能知臭香矣”³⁴⁾라 하여 肺氣의 상태가 鼻覺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였다. 또 涕(콧물)는 鼻腔을 濡潤하여 정상적인 鼻覺과 通氣작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肺爲涕”³⁵⁾라 한다.

임상에서 外邪의 침습으로 肺氣가 宣發肅降의 機能을 失調하면 鼻塞, 流涕, 鼻不聞香臭의 증상이 나타나고, 肺熱이 壅盛하면 涕液이 변하여 黃色의 膿涕가 흐르며, 肺陰이 不足하면 鼻腔이 乾燥하게 된다³⁶⁾.

이상 鼻脹, 鼻息不利, 鼻塞, 鼻不聞香臭^{37,38,39)} 등의 鼻竅不利와 涕液(콧물)의 상태는 肺氣의 不利가 코에 반영되는 지표가 된다. 故로 “鼻病者 手太陰之不清也”⁴⁰⁾라 한다.

(3) 皮毛

皮毛는 皮膚, 毫毛 및 汗孔을 포함하는 一身의 율타리로 外邪로부터 人體를 방어하며 汗, 血, 氣 및 呼吸을 조절하는데, 肺臟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肺之合皮也”⁴¹⁾ 또는 “肺主身之皮毛”⁴²⁾라 한다.

肺氣는 水穀精微를 宣布發散하여 皮毛를 자양하므로 “肺生皮毛”⁴³⁾ 또는 “毛者屬肺 稟金氣也”⁴⁴⁾라 한다. 따라서 皮毛는 肺氣의 충실과 영향을 반영하므로 “其華在毛 其充在皮”⁴⁵⁾라 한다. 다시말하면 皮毛는 肺氣의 작용에 依하여 溫煦·유탄·치밀하게 되고^{46,47)} 外邪에 대한 방어력이 增加된다. 그러므로 皮膚의 상태는 肺氣의 情狀을 추론하는 근거가 된다⁴⁸⁾.

병리적으로 肺氣가 皮毛를 자양하지 못하면 皮毛가 건조하고 시드는데⁴⁰⁾, 『素問·痿論』⁵⁰⁾의 “肺熱葉焦 則皮毛虛弱急薄”은 肺氣의 상태가 皮毛에 반영되는 임상적 의의를 언급한 것이다.

임상에서 肺氣가 虛하면 皮毛가 營衛의 溫煦와 滋養을 받지 못하므로써 皮膚가 까칠하고 치

밀하지 못하여 自汗하고 外邪에 대한 抵抗力이 떨어져 쉽게 질병에 이환되기도 한다.

皮膚의 汗孔은 肺氣에 의하여 汗의 분비와 체온 및 호흡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外邪의 침습으로 皮膚가 閉塞되면 衛氣가 鬱滯되고 肺氣가 不宣하여 無汗과 喘證이 출현한다. 肺氣虛로 汗孔의 開泄이 지나치면 自汗, 少氣, 困乏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氣와 津液이 汗을 따라서 外脫한다. 또한 邪氣가 肺를 침범하여 皮膚痛과 寒熱이 나타나거나 肺熱로 인한 色白과 毛敗의 증상은⁵¹⁾ 모두 肺氣와 皮毛의 상관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皮毛의 충실과 유탄 및 汗의 분비상태는 肺臟氣化의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가 됨을 알 수 있다.

(4) 聲音

肺氣는 발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肺가 聲音을 주관한다”고 한다. 音聲은 肺氣가 氣道(喉嚨)로 나오면서 聲門을 鼓動하여 發한다. 手太陰肺經은 “肺系”를 연락하고, 經別은 喉嚨(인후)을 循行하므로⁵²⁾ 肺氣는 發音器官인 喉嚨에 영향을 미친다. 黃宮繡은 “肺病者· · · ·或在聲音”⁵³⁾이라 하여 肺와 聲音의 임상적 의의를 지적 하였다.

임상에서 風寒의 邪氣가 肺를 侵襲한 感冒에 聲重, 聲嘶하고 심하면 失音하는 것은 肺氣의 不利가 聲音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金實不鳴” 또는 “金破不鳴”이라한다⁵⁴⁾.

(5) 胸膈

肺는 胸中の 氣를 주관하므로⁵⁵⁾ 肺臟의 생리와 병리는 胸膈部에 反映된다. 膈은 胸의 兩側部位를 말한다.

생리적으로 胸中の 宗氣와 胸廓의 형태 및 그 擴張하고 收縮하는 운동은 肺의 呼吸機能을 保障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병리적으로 肺氣의 不利가 胸部에 반영되면 胸悶, 仰息, 胸痛, 胸痺 등증을 야기한다⁵⁶⁾.

(6) 魄 및 憂·悲

肺氣는 魄 및 憂·悲의 神志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肺藏魄”, “在志爲憂 憂傷肺”, “其志爲憂 憂傷肺” 또는 五精所并 并於肺則悲“라 한다^{57,58,59}).

魄은 두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氣魄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膽力과 識見 및 勇斷을 말하며 意志와 能力의 종합으로 肺氣의 強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⁶⁰. 이에 “肺藏氣 氣舍魄”⁶¹ 이라 한다. 「本神篇」⁶²에서 “肺喜樂無極則傷魄 魄傷則狂 狂者意不存人 皮革焦毛悴色夭”라 하여 임상적으로 魄의 손상은 의식활동과 皮毛에 장애를 일으킴을 설명하였다.

다른 하나는 痛痒 및 冷熱에 對한 皮膚의 感覺과 肢體의 動作에 대한 肺氣의 작용을 말한다⁶³. 즉 肺氣가 津液과 衛氣를 체표에 산포하여 營衛가 조화를 이루면 皮膚·腠理가 致密하여 冷熱과 痛痒에 대한 感覺이 예민해 진다. 반대로 肺氣의 실조로 營衛의 조화가 상실되면 皮膚·腠理가 疏松(성김)하고 감각이 둔해진다.

憂는 곧 憂愁로서 鬱증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心情이 유쾌하지 못하고 우울한 상태를 말한다. 憂愁가 풀리지 않을 때는 대개 肺氣가 舒暢하지 못하여⁶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짧아지며 脈이 풀리고 근심스러워지며 정신이 振作되지 않는다. 이는 憂愁가 肺氣를 損傷

표3. 肺臟氣化의 病機와 生理系統의 임상표현

구분 肺臟 氣化	病機	생리계통		임상표현	비고
		관계	病位		
肺通 主調 氣水 道	肺失 治宣 節肅	相合	大腸	傳道失常：泄瀉,便秘 大腸氣機(滯滯：氣急·喘促,滑脫 ：少氣·語微)	肺氣通於大腸
		其竅 其液	鼻 涕	鼻脹·鼻塞·噴嚏·不聞香臭流 涕或膿涕·鼻乾	肺氣通於鼻 肺和則鼻能知香臭 涕者 肺氣熏蒸
		其充 其華	皮 毛	肺氣不宣：無汗·피부부종;肺氣 虛：自汗·皮毛焦;外邪犯肺： 皮膚痛·寒熱;肺熱：皮毛虛弱 ·色白毛敗	其充在皮 其華在毛
		其應	胸膈 聲音 呼吸	胸悶·胸痛 聲嘶·失音 喘促·喘嘔(呼吸急迫上逆)	肺膈之內肺之分 金破不鳴 諸氣膈鬱皆屬肺
		精神 情志	魄 憂·悲	氣魄과 피부의 감각 및 肢體動 作的 이상：感覺鈍麻·狂意不 存人·肢體乏力·의기소침·	肺臟氣 氣舍魄 在志爲憂 憂傷肺 悲則肺氣乘 悲則氣消
		經脈	手太陰經	始動病과 所生病	手太陰主治
		기타	膀胱	小便不利 痰의 발생	肺氣上逆 無以化水 肺爲貯痰之器

시킨 때문인데, 이른바 “憂傷肺”이다.

또한 『素問·玉機眞藏論』⁶⁵⁾에서는 “悲則肺氣乘矣”라하여 悲의 정서도 肺와 有關함을 지적하였다. 悲는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失望하여 心境이 淒涼하고 歎息이 그치지 않으며 머리를 숙이고 의기소침하는 情感活動이다. 悲는 정서방면에 있어서 하나의 반응이지만 지나치게 悲하면 肺氣를 消耗시켜 臨床的으로 情緒가 消沈하고 肢體乏力 等症이 발현한다⁶⁶⁾. 이를 “悲則氣消”⁶⁷⁾라 한다.

이처럼 肺臟氣化는 魄 및 憂·悲의 神志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魄 및 憂·悲의 神志변화 역시 肺氣의 손상을 초래하여 肺病證을 유발한다.

(7) 手太陰肺經

手太陰肺經은 肺臟의 氣化를 주도하고, 大腸腑를 連絡하여 “肺合大腸”의 표리관계를 형성한다.

『靈樞·經脈篇』에 의하면 肺의 經氣변동은 肺脹, 喘咳, 缺盆(쇄골상와)中痛의 臂厥證을 야기한다. 實證은 肩背痛, 小便頻數而欠하고 虛症은 肩背寒痛, 呼吸微弱 및 소변색이 변한다. 또 本經脈으로 치료할 수 있는 症狀을 咳嗽, 上氣喘喝, 心煩, 胸滿, 상지내측 앞쪽의 통증과 掌中熱로 개괄하였다⁶⁸⁾. 이는 곧 肺臟氣化의 病證과 치료 범위를 始動病과 所生病으로 개괄한 것으로서 肺經鍼刺의 적응증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肺의 生理系統은 臟象學의 중요한 이론체계로서 肺臟 辨證論治의 기초자료가 됨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天人相應의 관점에서 金運氣化의 작용에 근거하여 肺臟의 生理를 인식하고, 肺臟 생리계통의 임상적 의의를 검토한 바 다음의 지견을 얻었다.

첫째, 肺臟의 생리에 대한 본질적 인식은 金運

氣化의 德·化·政·숙에 법칙을 두고 있다.

둘째, 肺臟의 生理系統은 肺臟과 表裏, 相合, 開竅, 其液, 其榮, 其充, 其志, 其應, 藏神 등의 관계로 肺臟氣化의 生理·病理의 徵象을 반영한다.

이상으로부터 金運氣化는 肺臟의 生理를 인식하는 사유의 기초가 되며, 肺의 生理系統은 辨證論治의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9.
2. 申興默, 五運氣化를 중심으로 살펴본 臟象의 生理發顯과 一系統에 관한 研究, 東國論集 第13集(自然科學篇), 1994
3.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注, 上海, 上海科學文獻技術出版社, 1991.
4. 郭靄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影印), 서울, 一中社, 1991.
5. 郭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影印), 서울, 一中社, 1991.
6. 朱宗元·趙青樹, 陰陽五行學說, 天津, 天津科學出版社, 1987.
7. 方藥中·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大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8. 郭仲夫主編, 黃帝內經講解(上冊), 北京, 光明一步出版社, 1988.
9. 高峰, 針灸心傳, 河北,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1993.
10. 張六通, 中醫藏象學, 湖北,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8.
11. 黃宮繡, 本草求真(影印本), 서울, 一中社, 1992.
12. 龔延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13. 張介賓, 張氏類經, 台北, 文光島嶼有限公司, 中華民國 69年.

14. 黃元御, 黃元御氏醫書十一種(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참고문헌

1.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注, (上海, 上海科學文獻技術出版社, 1991), p.334(至眞要大論).
2. 上揭書, p.7(四氣調神大論).
3. 上揭書, p.16(金匱眞言論), pp.41-42(六節臟象論), p.222(水熱穴論), p.94(藏氣法時論)
4. 上揭書, p.46.
5. 郭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94), p.342.
6. 신홍목, 五運氣化를 중심으로 살펴본 臟象의 生理發顯과 系統에 관한 研究, (東國論集 第13集, 1994), pp.507-528.
7. 張隱庵, 前揭書, p.279(氣交變大論: 德化者氣之祥 政令者氣之章)
8. 張隱庵, 前揭書, p.334(至眞要大論)
9. 張隱庵, 前揭書, pp.276-277.
10. 張隱庵, 前揭書, p.16.
11. 張隱庵, 前揭書, pp.41-42(六節臟象論: 心者……通於夏氣, 肺者……通於秋氣, 腎者……通於冬氣, 肝者……通於春氣,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通於土氣), p.222(水熱穴論: 春者 木始治 肝氣始生; 夏者 火始治 心氣始長; 秋者 金始治 肺將收殺; 冬者 水始治 腎方閉), p.94(藏氣法時論: 肝主春 足厥陰少陽主治; 心主夏 手少陰太陽主治; 脾主長夏 足太陰陽明主治; 肺主秋 手太陰陽明主治; 腎主冬 足少陰太陽主治).
12. 張隱庵, 前揭書, p.23, 255(其在天爲燥 在地爲金……在臟爲肺)
13. 朱宗元·趙青樹, 陰陽五行學說, (天津, 天津科學出版社, 1987), p.94.
14. 郭仲夫, 黃帝內經講解·上冊,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1988), pp.18-19.

15. 郭靄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91), p.410.
16. 張隱庵, 前揭書, p.276(氣交變大論: 其德清潔 其化緊斂 其政勁切 其令燥).
*: 氣의 운동변화 徵象
17. 方藥中·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大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40.
18. 方藥中·許家松, 前揭書, p.140, 163.
19. 張隱庵, 前揭書, p.255(五運行大論).
20. 郭靄春, 前揭書, p.37(靈樞·邪氣臟腑病形: 形寒寒飲則傷肺).
21. 黃元御, 黃元御氏醫書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7.
22. 張隱庵, 前揭書, p.356(至眞要大論).
23. 黃元御, 黃元御氏十一種(下冊·四聖心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30.
24. 類機能體系에서 言及한 五種機能의 하나를 말한다.
25. 張隱庵, 前揭書, pp.41-42(六節臟象論: 心者……其華在面 其充在血脈; 肺者……其華在毛 其充在皮; 腎者……其華在髮 其充在骨; 肝者……其華在爪 其充在筋;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其華在脣四白 其充在肌)..
26. 郭靄春, 前揭書, p.172(脈度篇: 五臟常內關於上七竅也), pp.286-287(五閱五使篇: 五官者 五臟之閱也……以官何候 岐伯曰 以候五臟).
27. 張隱庵, 前揭書, p.46(五臟之象 可以類推 五臟相音 可以意識 五色微診 可以目察 能合色脈 可以萬全).
28. 郭靄春, 前揭書, p.342(視其外應 以知其內臟 則知所病矣).
29. 郭靄春, 前揭書, pp.103-104(經脈: 肺手太陰之脈……下絡大腸……上膈屬肺, 大腸手陽明之脈……絡肺 下膈屬大腸).
30. 張六通, 中醫臟象學, (湖北, 湖北科學技術出

- 版社, 988), p.25.
31. 張六通, 前揭書, p.25.
 32. 郭靄春, 前揭書, p.287(靈樞·五閱五使: 鼻者肺之官也).
 33. 張隱庵, 上揭書, p.17(金匱真言論: 開竅於鼻, 主鼻, 在竅爲鼻), pp.23-24(陰陽應象大論).
 34. 靄春, 前揭書, p.172.
 35. 張隱庵, 上揭書, p.99(宣明五氣).
 36. 龔延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270-271.
 37. 郭靄春, 前揭書, p.287(肺病者 喘息鼻脹).
 38.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9), p.145.
 39. 郭靄春, 前揭書, p.83(本神篇: 肺氣虛則鼻塞不利少氣 實則喘喝胸盈仰息)
 40. 黃元御, 前揭書, p.130.
 41. 張隱庵, 전게서, p.43(五臟生成篇), 169(痿論篇: 肺主身之皮毛).
 42. 張隱庵, 前揭書, p.169(痿論篇)
 43. 張隱庵, 前揭書, p.24(陰陽應象大論).
 44. 龔延賢, 前揭書, p.2.
 45. 張隱庵, 前揭書, 41(六節臟象論).
 46. 郭靄春, 前揭書, p.122(經脈: 太陰者行氣溫於皮毛者也), 260(決氣: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 充身 澤毛 若霧露之溉 是謂氣).
 47. 黃元御, 前揭書, p.28(肺氣盛則皮毛緻密而潤澤).
 48. 郭靄春, 前揭書, p.336(白色小理者肺小 粗理者肺大).
 49. 郭靄春, 前揭書, p.123(經脈: 手太陰氣絕則皮毛焦 太陰者行氣溫於皮毛者也 故氣不榮則皮毛焦 皮毛焦則津液去).
 50. 張隱庵, 前揭書, p.169.
 5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9), p.145.
 52. 郭靄春, 前揭書, p.103, 141.
 53. 黃宮繡, 前揭書, p.79.
 54. 黃宮繡, 前揭書, p.318.
 55. 張隱庵, 前揭書, p.128(肺主胸中之氣也 氣傷故痛主胸膈也), 276(胸膈之內肺之分也 脇內乃雲門天府之分 肺脈之所出 肩背肺俞之分 皮毛肺所主也).
 56. 張隱庵, 前揭書, p.85(本神: 肺氣虛則 實則喘喝胸盈仰息), p.128(刺熱: 熱爭則喘咳 痛主胸膈 不得太息 頭痛不堪 汗出而寒), 276(氣交變大論: 其臟肺 其病內舍膈脇 肩背 外在皮毛).
 57. 郭靄春, 前揭書, p.526(九鍼論).
 58. 張隱庵, 前揭書, p.24(陰陽應象大論), 255(五運行大論).
 59. 張隱庵, 前揭書, p.99.
 60. 高峰, 針灸心傳, (河北, 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1993), p.2.
 61. 郭靄春, 前揭書, p.85(本神篇).
 62. 郭靄春, 前揭書, p.84.
 63. 張介賓, 張氏類經, p.56(魄之爲用 能動能作 痛痒由之而覺也).
 64. 郭靄春, 前揭書, p.82 (本神: 愁憂者 氣閉塞而不行也).
 65. 張隱庵, 前揭書, p.80.
 66. 張隱庵, 前揭書, pp.153-154(舉痛論: 悲則心系急 肺布葉舉而有上焦不通 營衛不散 熱氣在中 故氣消矣)
 67. 張隱庵, 前揭書, p.153(舉痛論).
 68. 郭靄春, 前揭書, p.103(是動則病肺脹膨而喘咳 缺盆中痛 甚則交得兩手而替此謂臂厥 是主肺所生病者 咳上氣喘喝 煩心胸滿 臑臂內前廉痛 掌中熱 氣盛有餘則肩背痛 風寒汗出中風 小便數而欠 氣虛則肩背痛寒 少氣不足以息 溺色變)